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2월 21일)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나누면 따뜻합니다 서울 조계사는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사 봉축표어 '나누면 따뜻해요'를 표현하는 도량등을 걸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가 참된 공덕이라고 하셨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사진제공=조계사**

세계명상마을 개원…간화선사 한자리에

기공 4년만에 4월 20일 개원
제4회 간화선 대법회 봉행도

개원 맞춰 수행 공간 일반 개방
4월 26일까지 7일간 법석 열려
성파·지유·대원 스님 등 설법
4월 20일부터 선스테이도 진행


성파 스님 지유 스님 대원 스님 무여 스님 혜국 스님 의정 스님 영진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4월 20일, 한국불교 간화선 중흥의 중심지로 거듭날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개원을 기념한 간화선 대법회가 열린다.

간화선대법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각산)는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봉암사 천년의 산문을 열다' 기자회견을 열고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개원 및 제4회 간화선 대법회를 4월 20일 개최한다고 공개했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2015년 간화선 중흥을 위해 전국선원수좌회 고우, 적명, 의정 스님 등 한국대표 선승들이 봉암사에 모여 결의한 국제선센터다.

봉암사 산자락 8만 4000여㎡ 부지에 간화선과 초기불교 통합수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일반인과 스님들의 수행처가 있는 국민 수행공간으로 구성됐다. 2018년 7월 기공식을 필두로 건축연면적 5700여㎡로 명상관 2동, 명상숙소, 웰컴센터 등이 건립됐다. 이어 무문관 꾸띠, 숲속 꾸띠, 숲속 명상길 등이 추가로 불사 중에 있다.

이번 개원을 기념한 제4회 간화선 대법회에는 4월 20일 첫날 대원 스님(학림사 조실), 21일 영진 스님(백담사 유나), 22일 지유 스님(범어사 방장), 23일 의정 스님(한국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 24일 무여 스님(축서사 조실), 25일 혜국 스님(석종사 조실), 26일 성파 스님(15대 조계종 종정예하)이 법사로 나선다. 특히 조계종 신임 종정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세수 90세 평생 처음으로 산문 밖에서 설법 하는 지유 스님의 법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석자들은 법회 후 오후 1시 봉암사 참배, 선스테이 등을 할 수 있다. 7일 수행이 진행되는 선스테이에는 준비위원장 각산 스님(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의정 스님(상원사 용문선원장), 지범 스님(보문사 선원장), 월암 스님(한산사 선원장), 선법 스님(정진선원장), 진범 스님(봉암사 주지)이 직접 선수행을 지도한다.

대법회는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명상마을 명상홀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선스테이는 100명 정원으로 4월 20일부터 진행된다.

간화선 대법회는 2년마다 열리는 조계종 선풍진작 법회로 2013년 조계사 1회 대법회에 이어 2016년 동화사 2회 대법회, 2018년 흥법사 3회 대법회 등이 열린 바 있다.

각산 스님은 "2년마다 열리던 간화선 대법회를 코로나로 인하여 4년 만에 열게 됐다. 이번 대법회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개원을 겸해 열리는 대법석"이라며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이 공식적으로 일반대중에 처음 열리는 자리이기에 한국불교 7대선사를 모셨다"고 소개했다.

각산 스님은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은 수행"이라며 "불교 수행 진작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최상의 힐링법이자 심신처방법이 될 간화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정과 스님은 "자유롭고 싶다는 현대인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라며 "오롯이 의심을 가지면 어느새 번뇌망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봉암사 수좌 혜우 스님은 "간화선은 대중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선수행을 접하고,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효과가 담보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이번 법회와 세계명상마을 개원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은 "한국사회에서 한국의 간화선은 그동안 대중들과 호흡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수행자들이 나서야 한다"며 "천년 넘게 내려온 간화선의 종장들이 대중 앞에 나서는 매우 드문 자리"라고 평가했다.

한편, 참가신청은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홈페이지(www.wmv.or.kr)에서 가능하다. 간화선대법회 및 선스테이 외 세계명상마을 상설프로그램은 9일 화두명상, 평일 선스테이, 주말3일 집중수행 등이 있다. 문의 1577-4327

조계종 제15대 종정 예하
중봉성파 대종사 추대법회

3월 30일 서울 조계사서 봉행 예정



임기 3월 26일부터 시작
종단 안팎 주요인사 참석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 성파 대종사〈사진〉의 추대법회가 3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공개한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 일정에 따르면 추대법회는 육법공양과 명종, 삼귀의, 반야심경, 봉행사, 행장 소개, 추대사, 축사, 헌사, 등단봉청, 불자봉정, 법장봉정, 예경삼배, 청법게, 입정, 법어, 하단, 축가,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조계종 종정은 법의 상징이자 종단 최고권위를 갖는 어른인 만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원로의장 세민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등 종단 중진 스님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이웃종교 및 이웃종단 대표자와 해외 각국의 주한대사, 정관계 인사 등이 직접 혹은 영상으로 참석한다.

조계종은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임기는 2022년 3월 26일부터 시작된다"며 "조계종은 새롭게 추대되는 중봉 성파 종정예하의 가르침에 따라 종단의 사부대중들이 함께 화합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더욱 더 수행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비구계를 수계했다. 1970년 4월 7일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통도사 홍법 스님으로부터 전강했다. 1998년 봉암사 태고선원 수선안거 이래 26안거를 성만했고, 2000년에는 서운암 무위선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2002년 환성지안 문하 12세손 월하 스님으로부터 13세손으로 전법을 인정받아 법호 중봉을 수지했다. 이때 전법게는 인인각지자등화(人人各持自燈火) 기대일월심전로(豈待日月尋前路)로, '사람들 각기 자신의 등불을 가졌으니 어찌 해와 달을 기다려 앞을 찾겠느냐'다.

조계종 제5·8·9대 중앙종회의원과 통도사 주지, 통도사 서운암 감원, 영축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 원로의원에 선출됐다. 또 2014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고 2018년 3월 영축총림 방장으로 추대됐다.

선화나 선시,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남다른 원력도 눈에 띈다. 1984년 성파시조문학상을 제정한 데 이어 1985년 전국시조백일장을 제정했으며, 1989년 사단법인 영축전통문화연구원 이사장과 2007년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전통문화 계승과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中峰 性坡 大宗師 추대법회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中峰 性坡 大宗師 추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벽산 원행

일시
불기2566(2022)년 3월 30일(수) 오후 2시

장소
서울 조계사 대웅전 특설 법석

● 추대법회에 참석하는 스님들께서는 장삼과 종단 대가사를 수하시기 바랍니다.
● 추대법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오후 1시까지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